삼성 '초격차'·SK '다변화'·LG '혁신'

최윤호 삼성SDI 사장

"앞선 기술 경쟁력으로 1등 도약"

지동섭 SK온 사장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 만족 실현"

권영수 LG엔솔 부회장

"자율근무 등 행복 조직문화 구축"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CEO들이 새해를 맞아 각 사의 2022년 임인년 경영전략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32.7%(SN E 리서치, 2021년 1월~11월 기준)다. 순위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2위, S K온은 5위, 삼성 SDI는 6위다.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며 각 사의 대표들이 내놓 은 올해 경영 전략을 살펴봤다.

●삼성SDI "1등 도약 위한 초석 다질 것"

복초(猛虎伏草)의 자세로 진정한 1등 도 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수 있 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역설했 다. 맹호복초란 사나운 범이 풀숲에 엎 드려 있다는 뜻으로 영웅은 숨어 있어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최 사장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 력으로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







최윤호 삼성SDI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왼쪽부터) 등 배터리 3사 C EO들이 새해 경영전략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 나 및 각국 봉쇄 재연. 전 세계적 물류 대 라. 원자재가 상승 등 위험 요소가 상존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 해서는 '초격차 기술 경쟁력', '최고의

품질',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이 무

특히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품질이 가 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초격 차 기술 경쟁력이야말로 10년 후 우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최고의 품질 수준을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자"고 주 문했다. 이어 "질적 성장없이 양적 팽창 에 치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품으로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

●SK온 "제품 경쟁력 강화로 질주"

지동섭 SK온 대표(사장)는 "2021년 우리는 누적 수주량 1600GWh로, 업계 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 해는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질주하며 포 효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품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지 사장은 "우리 는 고객과 시장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최고의 성능을 내는 배터리 를 만들겠다는 약속했다"며 "안전성 강 화·유지에 기반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다양한 제품을 통해 다변화된 고객 니즈를 만족시켜 가야 한다"고 강

생산 수준과 역량의 업그레이드도 중 요하다고 밝혔다.

지 사장은 "공격적으로 구축해 온 글 로벌 양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원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 축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인재를 확보 하고 육성하는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한다 고 밝혔다.

●LG엔솔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부회 장)은 신년사를 대신해 '행복한 조직문 화 구축을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하며 새 해를 열었다. 성과 창출에 방해되는 요 소들은 과감히 없애고, 임직원들이 심리 적 안전감을 느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 는 설명이다.

권 부회장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 객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이라며 ▲핵 심에 집중하는 보고·회의 문화 ▲성과 에 집중하는 자율근무 문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수평 문화 ▲감사와 칭 찬이 넘치는 긍정 문화 ▲임직원의 건강 및 심리를 관리하는 즐거운 직장 활동 ▲이웃 나눔 문화 등을 주제로 총 6가지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수백여 명의 임직원이 대강당에 모여 최고경영자의 일방향적 메시지를 듣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 화 혁신을 통해 한 해를 시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혁 신안은 권 부회장이 취임 후 두 달여 동 안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취합한 건 의사항 및 업무 개선 아이디어 등을 토 대로 마련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두산 새 CI **DOOSAN** 공개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여정 시작'

*스로*えを아

중화학

2022년 1월 5일 수요일 15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이 3일 새 CI를 공개하고, '새 로운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 CI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CI에 있던 '3색 블록(쓰리 스퀘어)'이 사라진 것이다. 두산그룹 관 계자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 미래를 향해 역동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두산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새 CI의 색상의 이름은 '인데버 블루(Endeavour Blu e)'다. 두산 관계자는 '인간적이면서 신뢰를 주는 색상' 이라는 설명과 함께 "새로운 일을 힘껏 노력해서 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동적,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 따뜻함을 지닌 두산의 모습을 표현하는 색 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산의 새 CI에는 '126주년을 맞는 제일 오래 된 기업이지만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두산의 새로운 미 래를 향한 혁신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더 큰 도 약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 트라이젠, 수소터빈 등 수소 사업을 비롯해 협동 로봇, 수소드론,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 두산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 '고고챌린지' 동참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친환경 캠페인 '고고챌린 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 라스틱 사용을 줄여가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지난해 1월 부터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주 대표는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의 추천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주 대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하고, 우리 지구 살리고!'라는 슬로 건과 함께 친환경 및 지속가능 경영에 앞장설 것을 약속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성장'을 선언 하고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1, 27년 연속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

E1은 1996년부터 27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타 결을 이루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E1이 미래 지향적인 노경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구자용 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지속 소통하며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덕분이라는 평가다. 구자용 회장은 "27년 연속 임금 무 교섭 위임으로 미래 지향적인 노경 관계에 있어 또 하나 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회사를 믿고 맡겨준 노동조 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랑스러운 노경 문화를 이어 나가자"라고 말 했다.

편집 ㅣ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최윤호 삼성SDI 대표(사장)는 "맹호 모습을 결정지을 핵심역량"이라며 "품 질 최우선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세스와

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 힘을 모으고. 프로세스 및 시스템 차

술 전략을 수립하고. AI 모델 설계 등을 통 해 제조공정 등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 차전지소재연구소는 양·음극재, 리튬소재 분야 선행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며 수소·저탄소에너지연구소는 수 소·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기술개발 을 추진해 친환경 철강 공정을 선도하고 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우수연구인력 확보 를 위해 IT기업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 센터에 자리잡았다. 향후 인근에 미래기 술연구원 연구단지 건립도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기술연구원에 김 주민 AI연구소장, 김필호 AI연구센터장, 윤창원 수소·저탄소에너지연구소장 등 해 당 분야 전문가들을 외부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앞으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 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포스코그룹, R&D 컨트롤타워 '미래기술연구원' 개원

을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AI·이차전지소재·수소 연구개발 그룹 신성장 사업 육성 드라이브 차세대 기술 경쟁력 선점 잰걸음

포스코그룹이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 그룹 미래 신성장사업을 위한 R&D 컨트 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 장을 비롯해 김학동 부회장, 전중선 사장. 정탁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미 래기술연구원 개원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혁신 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표 R&D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과 김주민 미래기술연구원 AI연구소장이 4일 미래기술연구원 개원식 현 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스코그룹

저탄소·친환경 시대로 대전환되는 경영환 경 속에서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 고, 그룹 미래 사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 해 미래기술연구원을 발족했다.

미래기술연구원은 기존 철강 중심의 포

스코 기술연구원과 달리 AI, 이차전지소 재, 수소·저탄소에너지분야 3개 연구소 체 제를 기반으로 그룹 핵심 사업의 종합 연 구를 추진한다.

AI연구소는 그룹 AI컨트롤타워로서 기

1월 5일 (수) 음력: 12월 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屋別 호랑이 호랑이 행운색:흰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노랑 용 쥐 뱀 길방:북 길방:북 길방:서 길방:남 길방:남 길방:중앙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 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 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 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 부딪친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 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 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 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 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 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 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 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 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 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 는 것이 유리하다. 너무 욕심을 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이성 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간의 금전관계를 조심하라. 이 중요하다. 노력하면 달성된다. 처이다. 쥐띠와 상의하라. 부리지 마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 개 **ি** ও 행운색:청색 행운색:적색 행운색:노랑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생물 돼지 원숭이 길방:중앙 길방:남 길방:서 길방:동 길방:북 길방:남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 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 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 이다. 세상은 바삐 돌아가는데 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 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 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 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 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 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이 및 보관이 필요하다. 매사 꼼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 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 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 으로 행동하라. 이다. 자제하라. 이 강할 때이다. 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꼼히 살펴라. 용히 관망하라.



<u>人至之</u> を The sportsdonga					제3739호	
발행인·편집약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징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	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	10 제보·!	투고 02-361-	1616 sc	ol@donga	.com